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백 근 영[†]

김 애 란

명지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교수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총 228명의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된 매개효과는 일부가 지지되었다. 첫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지각된 차별감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만을 조절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가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했고, 후속 연구를 제언했다.

주요어 : 대상화 이론,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지각된 차별감, 조절된 매개효과

[†] 교신저자 : 백근영,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 Tel : 02-300-0977, E-mail : kybaek@mju.ac.kr

2004년도 정부의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추진 결과 2004년 1만 6천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 명으로 약 15년 만에 16배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그 중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2004년 8,960명에서 2019년 56,900명으로 증가하였다(국가교육통계, 2019). 이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들이 한국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권양이, 2008; 나임순, 2006; 이승중, 1996), 대학 안에서는 교수방법의 차이, 학업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한국학생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진로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양이, 2008; 주희정, 2010). 특히,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 과도한 외모관리행동 등의 신체상과 섭식행동에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 역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왕명, 2012; 유연, 남인용, 2018). 구체적으로 중국 남자 유학생들보다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외모 및 체형에 대해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남자 유학생들과는 달리 정상체중의 여학생들도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명도, 김도연, 김종원, 2012). 이러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및 섭식행동의 문제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서 학업에 대한 만족하고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양, 2018; 임상관, 이지안, 2017).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신체상 및 섭식행동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에 관련된 연구들은 소수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상과 화장품구매행동 또는 외모관리행동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며(예, 왕명, 2012; 여수수, 2019; 홍수남, 2013).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상의 심리적 기제에 관련되어서는 한국 미디어 노출 및 접촉여부에 관련된 연구들만이 존재한다(유연, 남인용, 2018; 전지현, 이미숙, 2014). 구체적으로 유연과 남인용(2018)의 연구에서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한국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성의 외모는 날씬해야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지현과 이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 미디어에 관심과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중국 여자 유학생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미디어가 중국 여자 유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내에서 경험 역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상 및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정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꼽았고, 진나(2013)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관계 내에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여자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생활 중, 화장, 옷차림 등에 대해 지적 받는 경험들이 있

는 것으로 보고했다(진나, 2013).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대인관계 내에서 여성의 외적인 요인에만 치중하여 여성을 “대상화(objectification)”시키는 경험들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섭식 행동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더욱이,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경험한 성적 대상화 경험들은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대인관계 내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이수자, 2004). 여기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란 자신의 신체가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평가되는 등의 성적 응시, 성희롱 또는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 성적 접근을 의미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보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시도 등의 성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지영, 최훈석, 2011), 그 중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68%(263명)가 성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이유는 다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90년 한국 정부에서 추진한 연변처녀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사업으로 인해서, 국내 이주여성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한 중매의 문제로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은 매매혼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수자, 2004). 즉, 한국 사회에는 은연중에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인’의 혈통을 잇기 위한 “대상(object)”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들이 존재한다(송민애, 2007). 둘째, 이주여성들이 주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저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유입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가사노동자, 간병인, 성매매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적 차별이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인과 결합하여 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김영란, 2017).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과 성추행 등 성적 대상화 경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대인관계 내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취업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것이 아니지만, 이들 역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관련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을 바탕으로 중국 여자 유학생의 신체상과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관련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여성 유학생들에게 적절한 예방과 개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대상화 이론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berts, 1997)은 여성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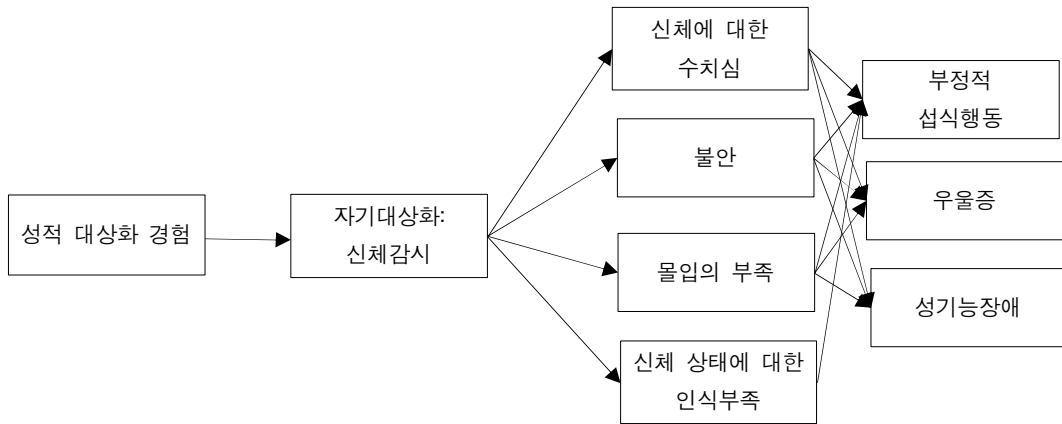


그림 1. 대상화이론에서의 변인 간 인과적 관계(Fredrickson & Roberts, 1997)

을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적 틀이다(그림 1 참조). 대상화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관계 및 일상에서 자신의 신체가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평가되는 등의 성적 응시, 성희롱 또는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 성적 접근을 경험할 수 있다. 대상화 이론에서는 여성들이 이러한 성적 평가와 접근 등을 경험하는 것을 통칭하여 성적 대상화 경험(sexual objectification)이라고 한다. 반복적으로 성적 대상화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의를 상실하고 관찰자의 시각과 관점을 내면화하게 된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이렇게 자신을 관찰자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자기 대상화(self-objectification)로 지칭했으며, 이는 자신의 신체를 살펴보거나 또는 신체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성들은 신체감시로 나타나는 자기 대상화의 과정을 통해 타인의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고, 주체적으로 긍정적 경험을 할 기회는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안(anxiety)을 느끼고 수치심

(body shame)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성적 욕구, 배고픔 등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내적 신체 인식(internal body awareness)이 감소하고, 작업에 집중하고 몰입(flow)하기 힘들어진다. 대상화 이론에서는 이러한 수치심, 불안, 몰입 결여, 내적 신체 인식 부족은 우울, 성적 불만족,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 식이 제한 등 거식증에 관련된 섭식행동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상화 이론이 여성의 부정적 섭식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가능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는데, 그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미디어에 대한 노출(김시연, 서영석, 2011; Aubrey, 2007; Kim, Seo, & Baek, 2014)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Holmes & Johnson, 2017; Kozee & Tylka, 2006)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두 경로를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은 모두 여성의 섭식관련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성적

대상화에 관련된 미디어 노출이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란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응시하는 경험을 의미한다(김시연 등, 2010; Kim 등, 2014). 둘째, 성적 대상화 경험에 노출된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adi, Dirks, & Matteson, 2005). 여기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의 외모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으로, 여러 문헌에서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시연 등, 2010; Daniel & Bridges, 2010; Kim et al., 2014; Mitchell & Mazzeo, 2009). 또한, 내면화는 신체수치심을 매개 또는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이중 매개하여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시연 등, 2010; 류애리 & 송원영, 2013). 마지막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살펴보고 감시하는 경향성은 섭식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시연 등, 2010; Augustus-Horvath & Tylka, 2009).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의 여성들의 신체상 및 섭식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손은정, 2007; 김시연 등, 2010)을 비롯하여 일본(Nielson, Reel, Galli, Crookston, & Miyairi, 2013), 나이지리아(Koleoso,

Akanni, & James, 2018), 중국(Luo, Niu, Kong, & Chen, 2019; Zheng & Sun, 2017) 등 다양한 국가에서 대상화 이론이 여성들의 섭식 관련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적용가능한지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인 미국의 흑인 여성들(Buchanan, Fischer, Tokar, & Yoder, 2008; Mitchell & Mazzeo, 2009), 아시안 여성들(Phan & Tylka, 2006; Cheng, Tran, Miyake, & Kim, 2017), 라틴/히스패닉 여성들(Aslan, 2018), 무슬림 여성들(Tolaymat & Moradi, 2011)의 신체상 또는 섭식 관련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문헌들에서는 대상화 이론을 적용하여 소수집단 여성들의 섭식관련 문제를 설명하려는 문헌은 찾기 어려웠으나 한국의 미디어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상 및 신체수치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문헌들이 존재한다(유연, 2016; 전지현, 이미숙, 2015). 유연(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매체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상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노출된 빈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오락 프로그램에 노출된 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상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지현과 이미숙(2014)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자신의 체형을 관리하는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등 대상화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변인들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에게도 관찰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대상화 이론이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섭식관련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부정적 섭식행동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차별감과 대상화 이론

지각된 차별감이란 개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으로 개인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김재우, 2005).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차별경험은 유학생들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연, 신리나, 황하성, 2019; 최정, 2016). 예를 들어,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높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제빙석, 김빛여울, 조경숙, 강진령, 2018), 위험한 음주습관(박지선, 천지은, 2017)과 우울한 정서(석향란, 2017)를 보이며,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명, 2013). 국내 연구에서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의 지각된 차별감이 섭식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문헌들은 없었으나, 국외 문헌들에 따르면, 아시아계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우, 지각된 차별감이 섭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wan, Gordon, & Minnich, 2018).

최근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소수집단 여

성들의 부정적인 섭식행동을 살펴본 문헌들에서는 소수집단 여성들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적 요소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Cheng et al., 2017; Velez, Compos, Moradi, 2015). 예를 들어, Cheng과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사회 내에서 경험한 자신의 인종/민족적 배경에 대한 특징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의 빈도, 지각된 차별감, 이방인 또는 외국인으로 취급받은 경험들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Cheng 등(2017)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와 지각된 차별감은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lez 등(2015)의 연구에서는 라틴계/히스패닉계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인종차별 경험이 독립적으로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대상화 관련 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종차별 경험이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 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소수집단 여성들의 인종차별의 경험을 성적 대상화 경험과 분리하여 이들의 부정적 섭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Velez 등(2015)의 연구에서 대상화이론에 따른 모형에 인종차별 경험을 포함시켰을 때,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종차별이 성적

대상화 경험보다 라틴계 미국 여성들의 부정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국외 문헌들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과 아시아계 미국 여성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Buchanan, Settles, Wu, & Hayashino, 2018; Moradi & Subich, 2003; Szymanski & Henrichs-Beck, 2014). 예를 들어, 인종 차별적 사건과 성차별적 사건이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차별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adi & Subich, 2003).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차별 경험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Velez 등(2015)의 라틴계 미국 여성들의 47%가 이주 1세대인 반면에, Moradi와 Subich(2003)를 비롯한 다른 연구들의 연구 대상들은 전부 이주 2세대 이상의 미국시민들에 해당된다. 이주 1세대의 경우에는 이주 2세대 이상보다 언어 능력을 비롯하여 문화적 적응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낮은 적응수준은 인종차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정진경, 김재우, 2005).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진학한 학생들로 Velez 등(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적응수준이 낮아 인종차별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인종차별적 경험이 성적 대상화 경험보다 이들의 부정적 섭식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과 성적 대상화 경험의 관계 양상이 Velez 등(2015)의 연구결과와 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틴계 미국 여성들은 주류집단인 백인 미국여성들 간의 피부색 등의 외적 차이가 상당한 반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한국 여성들과 동일한 동양인이며, 외적 모습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즉, 관계 내에서 중국인이라는 인종/민족적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고, 그로 인한 차별 경험이 적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한국 여성들과 유사하게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섭식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종/민족적 차별의 빈도와 경험이 많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Velez 등(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성적 대상화 경험보다는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이 이들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radi(2010)가 제안한대로 지각된 차별감을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선행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2에서와 같이, 지각된 차별감의 조절효과 및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한 내면화 및 신체감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문헌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내면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등, 2017). 그러나 지각된 차별감과 신체감시의 관계는 문헌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Cheng 등(201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신체감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종/민족적 소수자는 아니지만, 성적 소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성에 관련한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감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seman & Moradi, 2010).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인종/민족적 소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이 대상화 관련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이 내면화와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특히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부정적인 섭식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화 이론과 중국 여자 유학생들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그림 2 참조). 또한, 지각된 차별감이 대

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의 관계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조절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조절하는지를 검증했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대상화이론을 바탕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의 섭식행동을 설명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와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itchell & Mazzeo, 2009; Tolaymat & Moradi, 2011), 내면화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itchell & Mazzeo, 2009; Phan & Tylka, 2006; Tolaymat & Moradi, 2011), 신체감시는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uchannan 등, 2008; Tolaymat & Moradi, 2011), 신체수치심은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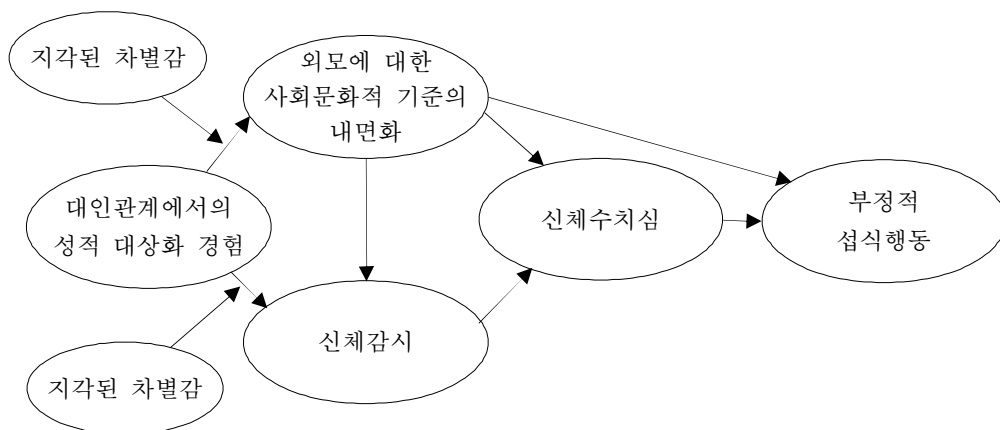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로 나타났다(Tolaymat & Moradi, 201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내면화와 신체감시, 내면화와 신체수치심, 내면화와 섭식행동,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 신체수치심과 섭식행동 간의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둘째, Tolaymat과 Moradi(2011)의 연구에 따르면, 무슬림여성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Cheng 등, 2017),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내면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지각된 차별감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Cheng 등, 2017; Wiseman & Moradi, 2010). 그러나 이제까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를 살펴본 문헌이 존재하지 않기에, Moradi(2010)의 제언에 따라, 지각된 차별감이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Velez 등(2015)과 Moradi & Subich(2003)의 연구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심리적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Velez 등(2015)의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인종차별 경험은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oradi

와 Subich(2003)의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만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를 이주세대에 따라 나타난 차이로 해석해, 이주 1세대일수록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종차별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 따라서 인종차별 경험이 많은 경우,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중국인으로써 경험한 인종차별의 수준이 높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내면화와 신체감시 수준이 높을 것이고, 중국인으로써 경험한 인종차별의 수준이 낮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성적 대상화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와 신체감시 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Cheng 등(2017)의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지각된 차별감이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높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성적 대상화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섭식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낮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성적 대상화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섭식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대인관

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지각된 차별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차별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차별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한 홍보문과 이미 번안된 지각된 차별감 척도를 제외하고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안되어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었다. 번안 과정은 역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을 위한 홍보문과 설문지를 한국어와 중국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한 한국인 대학원생(A)에게 번역을 부탁하였다.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상담심리 전공인 중국인 대학원생(B)이 중국어로 번안된 홍보문과 설문지를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은 원래의 한국어 홍보문과

설문지를 역번역된 홍보문과 설문지들과 비교하여 어감이 다른 문장들과 문항들에 대해 표기하여 중국인 대학원생(B)에게 중국어 버전의 홍보문과 설문 문항들을 수정하도록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석사출신 중국인 상담심리사(C)에게 수정 및 보완된 중국어 버전의 홍보문과 설문 문항들의 검토를 부탁하여 중국어 버전의 연구 참여 홍보문과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 Facebook)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여기에 활용된 중국어 버전의 온라인 홍보문에서는 한국어로 유학 온 지 1개월 이상이 된 중국 여학생들만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연구에 참여한 재한 중국인 여학생은 총 267명으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2명, 한국 거주기간 1개월 미만인 3명을 제외한 22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4.11세($SD=3.35$)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대학생이 132명(57.9%), 석사과정생이 81명(35.5%), 박사과정생이 15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계열이 69명(30.3%), 사회 및 상경계열이 84명(36.8%), 자연과학계열이 5명(2.2%), 공학계열이 6명(10%), 예술계열이 16명(7.0%), 의·치·간호계열이 4명(1.8%)이었으며, 무응답이 34명(14.9%)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2개월에서 11년까지 평균 35.93개월($SD=25.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키는 147cm에서 180cm까지 평균 163.74cm($SD=5.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36kg에서 160kg까지 평균 57.91kg($SD=1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한 결

과, 평균 21.56($SD=5.4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 대상은 정상체중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3이상을 과체중, 25이상을 비만으로 간주한다(대한비만학회, 2019). 연구대상자의 75.9%가 정상체중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13.2%는 과체중, 11.0%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성적 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k (2007)가 개발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ISOS)를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 역번역 방법을 활용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SOS는 총 15개의 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ISOS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평가(Body Evaluation)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응시하는 경험을 묻는 것으로 11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의 신체적 외모를 평가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Unwanted Explicit Sexual Advances)은 대인관계 내에서 성적인 접근이나 실제 행동을 경험한 것을 묻는 것으로 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 학교 등등)” 등이 있다. 김시연 등(2010)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ozee 등(2007)과 동일하게 ISOS는 2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Kozee 등의 연구(2007)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91로 산출되었고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2, 하위요인인 신체 평가는 .89, 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은 .82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inbergh, Th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 중 하위요인인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란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을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지를 의미한다. 내면화 척도는 8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한 정도가 큰 것을 시사하며, 5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 완전히 동의함)로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날씬한 여자들의 사진들은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와 “TV와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준다.”가 있다. 기존 문헌들에서 내면화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8부터 .90까지로 산출되었다(Heinberg et al., 1995; Moradi & Rottenstein, 2007; Morry & Staska, 2001).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신체감시

신체감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를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의 하위 척도인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를 사용했다. 신체감시란 습관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살펴보고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가 있다. Moradi 등(2005)의 연구에서 신체감시의 내적 일치도는 .82였고,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75,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는 .83,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

신체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를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2007)의 연구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의 하위 척도인 ‘신체수치심(Body Shame)’을 사용하였다. 신체수치심 척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모습(외모)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

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가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4로 산출되었으며,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는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섭식행동

부정적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arner와 Garfinkel(1979)이 제작하고 개정한 척도인 식사태도 척도(Eating Attitude Test-26; EAT-26)를 이민규 등(1998)이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KEAT-2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 환자들의 여러 태도와 행동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정상 체중인 사람들의 섭식 문제 및 이상 섭식 행동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EAT-26은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항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관련 문제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 KEAT-26은 총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하위 척도의 이름과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적 증상(self-control of eating and bulimic symptom; “먹은 후엔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날씬함에 대한 집착(preoccupation with being thinner;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음식에 대한 집착(food preoccupation; “음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이어트(dieting; “내가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알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8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2014)의 연구에서는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적 증상 .74, 날씬함에 대한 집착 .75, 음식에 대한 집착, .77, 다이어트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Jackson과 Anderson(1997)이 개발한 The Williams Major and Everyday Discrimination Questions을 박은영(2012)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된 중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자주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민족/인종적인 배경 등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한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례한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와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내적 일치도는 Kessler, Mickelson과 Williams(1999)의 연구에서 .87, 박은영(2012)의 연구에서 .90, 김수아와 김태호(2011)의 연구에서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 중재효과, 중재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SPSS 18.0을 활용하여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지각된 차별감에 대해 변인 별로 세 개의 꾸

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우선, 잠재변인 별로 단일요인으로 가정된 뒤,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다음, 요인부하량 절대값에 따라 문항들을 순위를 매긴 뒤,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하나의 짝으로 묶어서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했다. 꾸러미를 제작한 뒤,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Lei & Lomax, 2005).

본 연구에서 분석할 조절된 매개모형은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것으로 조절 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Wu & Zumbo, 200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순으로 검증하였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뿐만 아니라 Tucker-Levis Index(TLI: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Comparative Fit Index(CFI: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10이하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을 함께 살펴보았다(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한편, 다중매개효과 검증할 때, AMOS에서는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통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의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배병렬, 2011). 팬텀변인이란 가상변수로,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모델의 적합도 및 모수

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이다. 즉, 팬텀변인을 설정한 뒤,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면 AMOS에서 곱의 형태로 된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표현할 수 있어 개별 간접효과 크기를 산출할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조절된 매개모형이 선정된 뒤, 이중 매개가 존재하는 경로에서 산출될 수 있는 개별 간접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들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것으로 모수의 분포를 추정할 수 없을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근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산출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N=228)로부터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BMI지수가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김시연 등, 2010), BMI지수와 변인들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BMI지수와 신체감시($r = -.19, p < .01$)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BMI지수를 공변인으로 채택하고 신체감시로 가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결 과

매개효과 검증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BMI지수를 통제 후,

측정 변인 간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대체로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에 적절히 적재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전체 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0, N=228)=173.010, p=.001$; CFI =.95, TLI=.94, RMSEA=.072(90% 신뢰구간=.057-.086).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60에서 .92 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15개의 측정변인이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97, N=228)=226.791, p=.001$; CFI =.93, TLI=.92, RMSEA=.077(90% 신뢰구간=.064-.090). 그림 3에서 나타났듯이, 7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면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신체감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면화→신체감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면화→신체수치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부정적 섭식행동, 신체감시→신체수치심, 신체수치심→부정적 섭식행동). 매개모형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면화는 5%. 신체감시는 10%. 신체수치심은 28%. 부정적 섭식행동은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했다(Shrout & Bolger, 2002). 원자료부터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검증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내면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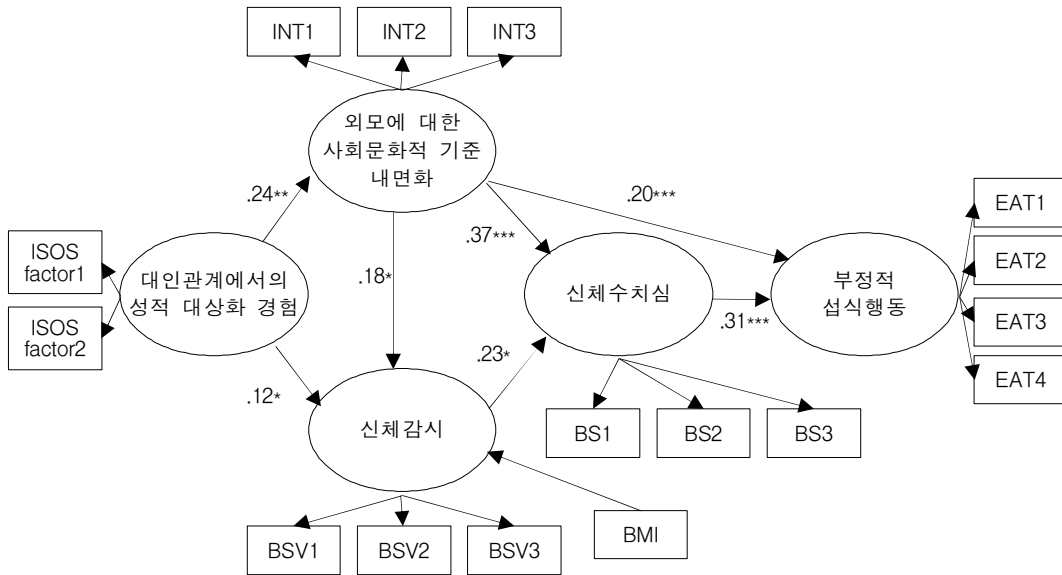


그림 3. 매개모형

* $p < .05$. ** $p < .01$. *** $p < .001$.

ISOSfactor1=신체평가, ISOSfactor2=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 INT1, 2, 3=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면화 꾸러미 1, 2, 3; BSV1, 2, 3=신체감시 꾸러미 1, 2, 3; BS1, 2, 3=신체수치심 꾸러미 1, 2, 3; EAT1=식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대식적 증상, EAT2=날씬함에 대한 집착. EAT3=음식에 대한 집착, EAT4=다이어트

통해 신체감시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 p < .05$).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를 통해 신체수치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1$).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통해 부정적 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 p < .01$).

조절효과 검증

Preacher 등(2007)에 따라, 매개모형 검증 이후 본 연구에서는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4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 모형을 나타내고, 그림 5에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 모형을 나타낸다. 조절모형의 적합도와 조절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Ping(1996b)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Ping의 2단계 방법은 상호작용효과분석에서 비선형제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를 각각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에 상호작용 변인을 구성하였고, 단일지표로 구인하였다(서영석, 2010).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변인(XZ)의 분산은 예측변인(X)과 조절변인(Z)의 분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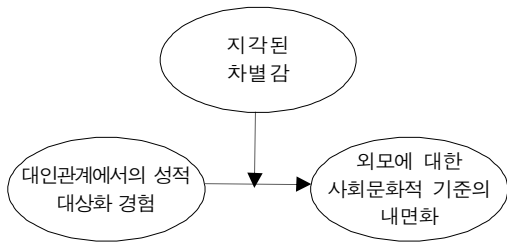


그림 4. 조절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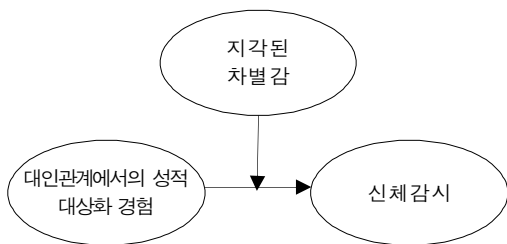


그림 5. 조절모형 2

곱하고 이에 두 변인의 공분산을 합하였고, XZ의 요인계수는 X와 Z의 요인계수들을 각각 더한 뒤, 이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XZ의 오차분산은 X와 Z의 요인계수를 제공한 후, 이에 해당 변인의 분산을 각각 곱한 뒤, X

와 Z에 해당하는 오차변량을 더한 것을 각각 곱하고, 이를 합한 뒤, 이에 마지막으로 X에 해당하는 오차변량과 Z에 해당하는 오차변량을 곱한 값을 더하였다(배병렬, 2011).

먼저, 조절모형의 측정모형은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9, N=228)=105.253, p<.001; CFI=.94, TLI=.92, RMSEA=.087(90\% \text{ 신뢰구간}=.067-.107; \text{조절모형1}), \chi^2(39, N=228)=111.381, p<.001; CFI=.94, TLI=.91, RMSEA=.090(90\% \text{ 신뢰구간}=.071-.110; \text{조절모형2}).$ 조절모형들의 구조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2, N=228)=112.544, p<.001; CFI=.94, TLI=.92, RMSEA=.086(90\% \text{ 신뢰구간}=.067-.105; \text{조절모형1}), \chi^2(42, N=228)=123.328, p<.001; CFI=.93, TLI=.91, RMSEA=.092(90\% \text{ 신뢰구간}=.074-.111; \text{조절모형2}).$ 그러나 조절모형 1의 경우에는 지각된 차별감($\beta=.17, p>.05$)과 상호작용 변인(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times 지각된 차별감; $\beta=-.14, p>.05$)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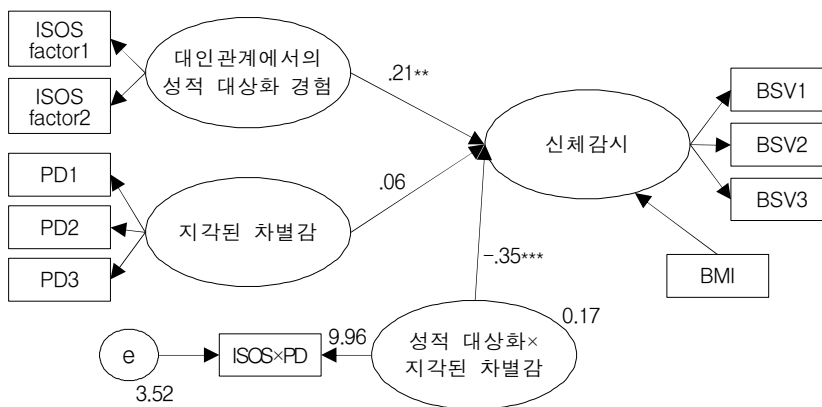


그림 6. 조절모형 2의 경로계수

** $p < .01$. *** $p < .001$.

ISOSfactor1=신체평가, ISOSfactor2=원하지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 PD1, 2, 3=지각된 차별감 꾸러미 1, 2, 3; BSV1, 2, 3=신체감시 꾸러미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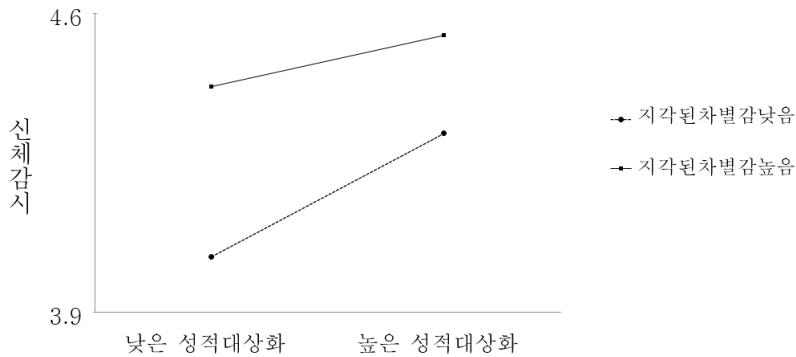


그림 7. 지각된 차별감에 따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그림 6에서와 같이, 조절모형 2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인(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지각된 차별감)이 신체감시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 p < .01$). 지각된 차별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체 집단을 지각된 차별감이 낮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이하인 집단)과 높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가 두 집단에서 다른지를 확인하였다(서영석, 2010). 그 결과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차별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b = .25, p < .01$), 지각된 차별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8, p > .05$). 즉, 한국 사회

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지각하지 않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감시하는 경향이 높아지지만, 차별을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성적 대상화 경험의 수준과 관계없이 신체감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지각된 차별 및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모든 변인들이 포함된 조절된 매개모형(그림 8)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1, N=228)=391.601, p < .001$; CFI =.91, TLI=.90, RMSEA=.080(90% 신뢰구간=.070-.090). 총 9개의 직접경로 중, 8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수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2, N=228)=392.768, p < .001$; CFI =.91, TLI=.90, RMSEA=.079(90% 신뢰구간=.069-.089).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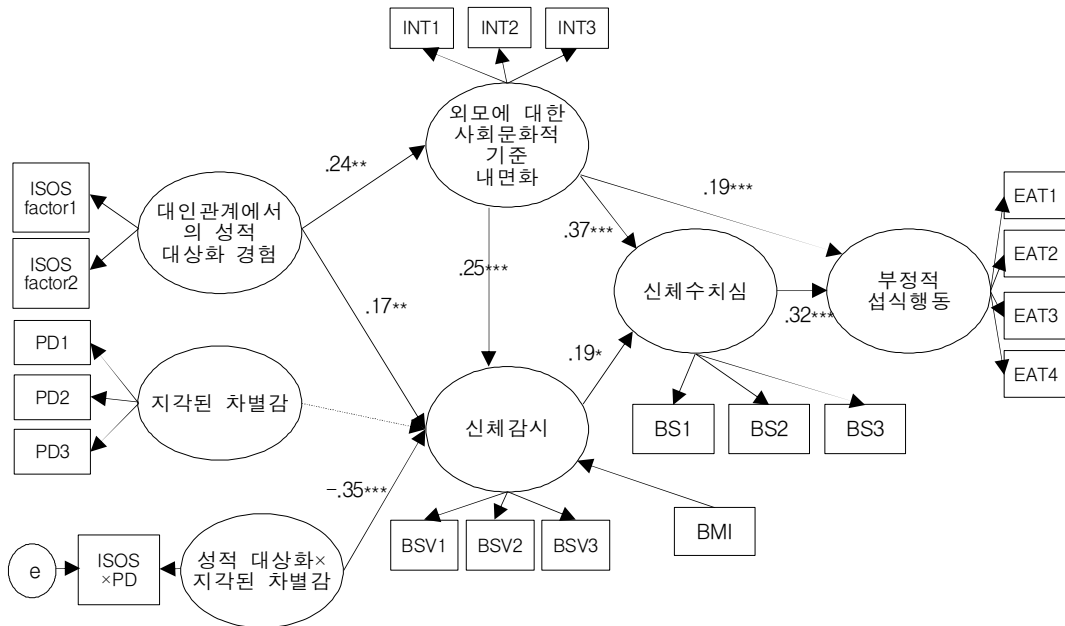


그림 8. 조절된 매개모형

* $p < .05$. ** $p < .01$. *** $p < .001$.

ISOSfactor1=신체평가, ISOSfactor2=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 PD1, 2, 3=지각된 차별감 꾸러미 1, 2, 3; INT1, 2, 3=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면화 꾸러미 1, 2, 3; BSV1, 2, 3=신체감시 꾸러미 1, 2, 3; BS1, 2, 3=신체수치심 꾸러미 1, 2, 3; EAT1=식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대식적 증상, EAT2=날씬함에 대한 집착. EAT3=음식에 대한 집착, EAT4=다이어트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 N=228)=0.167, p=.683$. 따라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1개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과, 수정모형이 적합도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수정모형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변량은 5%, 신체감시의 26%, 신체수치심의 26%, 부정적 섭식행동의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에서와 같이, 8개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신체감시, 상호작용변인(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경험×지각된 차별감)→신체감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신체감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신체수치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부정적 섭식행동, 신체감시→신체수치심, 신체수치심→부정적 섭식행동).

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원자료($N = 228$)로부터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의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의 신

표 2.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ISOS → 내면화 → 신체감시	.06**(.02, .13)
ISOS → 내면화 → 신체수치심	.09**(.02, .17)
ISOS → 내면화 → 부정적 섭식행동	.05**(.01, .10)
ISOS → 내면화 → 신체수치심 → 부정적 섭식행동	.03**(.01, .06)
ISOS → 내면화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 부정적 섭식행동	.01*(.00, .01)
ISOS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03*(.00, .11)
ISOS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 부정적 섭식행동	.01*(.00, .03)
상호작용변인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07*(-.06, -.01)
상호작용변인 →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 부정적 섭식행동	-.02*(-.17, -.01)

주. N=228. 표에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ISOS=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상호작용변인=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경험×지각된 차별감.

* $p < .05$. ** $p < .01$.

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접효과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변인(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지각된 차별감)은 신체감시를 매개로 신체수치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 p < .05$). 이러한 결과는 조절모형 검증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매개로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변인(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지각된 차별감)은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05$). 이는 지각된 차별감이 대인관계

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부정적 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매개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의 간접효과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한 뒤, 재한 중국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를 대상화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상담실제에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대인관계

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상화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다(Mitchell & Mazzeo, 2009; Phan & Tylka, 2006; Tolaymat & Moradi, 2011). 즉, 한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인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노골적인 성적 접근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가받을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살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감시 행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섭식관련 문제 및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포함한 본 연구의 매개모형이 부정적 섭식행동을 총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문헌들에서 언급했듯이(김영란, 2017; 송민애, 2007; 이수자, 2004), 한국 사회에서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차별이 이들의 부정적 섭식행동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각된 차별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다. 특히, 조절효과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Cheng 등, 2017; Wiseman & Moradi, 2010), 지각된 차별감이 내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어를 비롯한 한국사회에서 요구하는 한국 여성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준(예, 날씬함, 피부색 등)이 한국 사회에

서 중국인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주요 요소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Cheng 등(2017)의 연구는 아시아계 미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들이 지각한 차별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촉진했다. 여기서 미국 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란 날씬한 백인 여성을 의미한다(Buchanan 등, 2008). 즉, 아시아계 미국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미국사회에서 동양인이기에 경험한 차별로 인해서, 여성은 피부색이 하얗고 날씬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는 경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한국 여성들과 피부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동양인들이다. 즉, 외모가 유사하기에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이기에 경험하는 차별은 이들이 한국 TV나 미디어 또는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의 미적 기준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차별에 관련된 문헌들에 따르면,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 중, 날씬해야하는 등 외모에 관련된 것은 찾을 수 없었다(진사선, 2019).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관련된 문헌에서도 한국인들은 중국인의 외적 모습이나 외모보다는 냄새, 시끄러운 목소리 등 청각 및 후각적인 측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그러나 중국인 여성 또는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중국인이기에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기에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 경험과 동성애 차별 경험이 신체감시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Wiseman과 Moradi(2010)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Velez 등(2015)의 연구에서 인종차별 경험이 포함되었을 때, 성적 대상화 경험이 대상화 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바탕으로, 지각된 차별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빈도가 낮다고 지각하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외모에 대해 평가받거나 노골적인 성적 접근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신경 쓰는 행동이 증가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빈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성적 대상화의 경험 수준과 관련 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신경 쓰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중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성적 대상화 경험과 같은 성차별 경험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내면화 간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감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차별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의 간접효과(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신체감시→신체수치심→부정적 섭식행동)는 정적인데

반해, 지각된 차별감으로 조절된 간접효과(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지각된 차별감→신체감시→신체수치심→부정적 섭식행동)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가 달라질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부정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절모형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지각된 차별감의 상호작용 패턴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중국인으로써 차별을 경험한다고 지각할수록 성적 대상화 경험 수준과 관계없이 신체감시 수준이 높아지며, 결국 신체수치심 및 부정적 섭식행동 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한 중국인 여학생들의 섭식행동에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 이들이 여성으로써 경험하는 성차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중국인으로써 경험하는 차별을 함께 살펴봐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대상화 이론과 상담 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현재까지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의 부정적 섭식행동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대상화 이론의 적용 범위를 한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게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기존 국외 연구들에서는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을 연구할 때 이들이 경험한 성적 대상화 경험을 제외하고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만 단독적으로 대상화 이론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Cheng 등, 2017),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을 독립된 선행변인으로써 대

상화 이론 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Velez 등, 2015). 또한, 인종/민족적 소수 집단은 아니지만, 트랜스 젠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와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둘을 비인격화경험(dehumanization)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현하여 대상화 이론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Brewster, Velez, Breslow, & Geiger, 2019).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인종/민족적 차별경험은 성적 대상화 경험과 대상화 이론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후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의 부정적 섭식행동을 연구할 때는 이들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으로써 경험하는 차별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켜야하며, 특히,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섭식관련 문제를 호소할 때 상담자들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성적 대상화 경험들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은 이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예, 매매혼, 저임금 노동자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상담자는 이러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접근들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상 및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체류연장을 해줄 수 있는 한국 남성들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경험하는 적이 있으며, 신고를 해도 언어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지철, 2015; 최상원, 2014). 따라서 섭식행동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재

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한국에서 이들을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대상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자에게 이러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현재의 신체상과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교육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Szymanski, Carr과 Moffitt(2011)에 따르면,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외적 압력들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수치심 또는 죄책감을 경감시키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지각한 차별감의 수준은 이들이 경험한 성적 대상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신체감시를 증진시키며,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섭식행동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중국인으로써 경험한 차별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것이 이들의 신체상과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차별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집단이 있는 경우, 불안과 우울 등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2019; 석향란, 2017). 따라서 상담자는 섭식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어떠한 인종/민족적 차별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경감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차별 경험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혼자 한국에 유학 올수 있었던 개인의 긍정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내담자가 학내 또는 지역사회에서 기댈 수 있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학생 그룹을 찾거나 언어교환 등의 기회를 통해 중국인에게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국인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지각된 차별감으로 조절된 성적 대상화 경험은 신체감시를 통해 신체수치심과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체감시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부정적 섭식행동을 이해할 때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시사한다. 즉,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행동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부정적 섭식행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정적 섭식행동을 보이고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하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을 상담할 때,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감시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신체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성적 대상화 경험 또는 차별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마음 챙김을 기반한 인지행동치료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전소라, 손정락, 2012), 예를 들어서, 섭식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은 자신의 신체를 탐

색하고 신경 쓰는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는지를 탐색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호흡 등을 기반한 명상기법을 통해 그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차별경험, 그리고 내면화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예,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외모가 되어야한다)을 수정하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지적이고 행동적 기법들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신체감시 행동을 줄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부정적 섭식행동의 증상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228명의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잠재변인, 20개의 측정변인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모델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했다. 그러나 Bentler와 Chou(1987)는 구조방정식에서 추정 모수당 최소 5배 이상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으로 현재 국내에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지 1달 이상 된 중국 출신의 여성들로,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추정 모수에 맞춰 모집해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대단위의 자료모집은 수월하지만, 인터넷 사용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의 자료는 수집하기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들이 아닌 전체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제작된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K-ISOS)가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여성으로 경험하는 인종화된 성차별(racialized sexism) 또는 성별화된 인종차별(gendered racism)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주여성들은 순종적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여전히 존재하며(엄재희, 2020), 이주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만 묘사한 한국어 교재가 버젓이 출판되고 있다(노수정, 2019). 이러한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이면서도 인종차별적 요소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포괄하여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성적 대상화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 척도를 제외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섭식행동 척도를 중국어로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화 과정을 엄격히 수행하여 이 척도들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경험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의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지각된 차별감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The Williams Major and Everyday Discrimination Questions을 중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이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류한수(2016), 김명선(2014)의 연구에서 재한 중국인

들이 지각한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원 척도는 일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에, 인종차별에 국한된 내용을 측정하는 도구는 아니다. 물론, The Williams Major and Everyday Discrimination Questions의 첫 번째 문항은 “한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례한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로, 응답자들이 추후의 문항들을 해석할 때 한국에서 중국인 이기에 경험한 차별들로 추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2번째 문항인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와 같은 문항은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이 아닌 연령 등 다른 사회적 지위에 기인해 응답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종/민족적 차별에 국한된 경험을 묻는 척도를 선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교육통계 (2019). 간추린 교육통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9). 2019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정보. 서울: 교육부.
-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1), 301-333.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명선 (2014). 재한 중국인 노동자의 지각된 차

- 별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아, 김태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지각과 차별대처방식. *다문화교육연구*, 4(1), 1-17.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시연, 서영석 (2011).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37-1160.
- 김영란 (201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43-95.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지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최훈석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 1-4.
- 김현숙 (201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연, 신리나, 황하성 (2019).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경험이 유학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1), 81-96.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노수정 (2019. 9. 12). 한국어 교재 성 역할 고정관념 지적에 국립국어원 “절판 계획”.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69423>
- 대한비만학회 (2019). *비만의 진단과 평가*. 서울: 대한비만학회
- 류애리, 송원영 (2013).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2), 345-365.
- 류한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345-356.
- 박은영 (2012).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지각된 차별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 천지은 (2017).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음주습관 간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33(4), 97-120.
- 변지철 (2015. 5. 19). 중국 여성 유학생 성폭행한 20대 ‘증거 부족’ 무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519085300056>
-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석명도, 김도연, 김종원 (2012). 중국 유학생들의 BMI에 따른 식습관, 운동습관 및 체형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

- 지, 3(1), 31-42.
- 석향란 (2017). 재한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문화 정체성을 통한 자아 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 명 (2013).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송민애 (2007).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몸 경험 - 유목적 체현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재희 (2020. 1. 2). 편견·고정관념 갇힌 EBS 이주민 프로그램, 변화 필요. 미디어 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0437>
- 여수수 (2019). 중국대학(원)생과 중국유학생의 한국기초화장품 사용실태와 만족도 비교.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 명 (2012). 대경 중국 유학생의 외모관리행동분석.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 양 (2018). 중국 대학생의 신체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 연 (2016).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 연, 남인용 (2018).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2(4), 132-163.
- 이민규, 이영호, 백세현, 손창현, 정영조, 홍성국, 장필립, 윤애리 (1998). 한국관 식사태도 검사 표준화 연구: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신체의학, 6(2), 155-175.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299-339.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상란, 이지안 (2017).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8(12), 189-199.
- 전소라, 손정락 (2012).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가 폭식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폭식행동, 정서적 섭식, 정서조절곤란 및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841-859.
- 전지현, 이미숙 (2014). 미디어 관여도가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8(4), 518-527.
- 전지현, 이미숙 (2015). 미디어 접촉반응에 따른 외모지향과 외모평가, 외모 관련 상품구매행동 차이 연구 - 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39(4), 576-585.
- 정진경, 김재우 (2005). 차별지각,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유형의 관계. 사회과

- 학연구, 22(2), 295-321.
- 제빙석, 김빛여울, 조경숙, 강진령 (2018).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43-63.
- 주희정 (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문제연구*, 3(36), 135-159.
- 진 나 (2013). 재한 중국유학생이 "지각된 차별감"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사선 (2019). 캠퍼스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차별경험: 개념도방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원 (2014. 7. 9). 창원대 교수,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 의혹.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46299.html
- 최정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통제소재와 지각된 차별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홍수남 (2013). 한국거주 중국여성의 외모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Kor J Aesthet Cosmetol*, 11(3), 585-591.
- Aslan, S. M. (2018). *Latinx Women's Disordered Eating: Considering Culturally Relevant Variables in the Objectification Theory Frame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 Aubrey, J. S. (2007). The Impact of Sexually Objectifying Media Exposure on Negative Body Emotions and Sexual Self-Perceptions: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Body Self-Consciousnes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0, 1-23.
- Augustus-Horvath, C. L., & Tylka, T. L. (2009).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predicts disordered eating: Does women's age mat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253-265.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entler, P. M., & Chou, C.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 Brewster, M. E., Velez, B. L., Breslow, A. S., & Geiger, E. F. (2019). Unpacking body image concerns and disordered eating for transgender women: the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and minority stres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66, 131-142.
- Buchanan, T. S., Fischer, A. R., Tokar, D. M., & Yoder, J. D. (2008). Testing a culture-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regarding African American women's body imag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699-718.
- Buchanan, N. T., Settles, I. H., Wu, H. C., & Hayashino, D. S. (2018). Sexual harassment, racial harassment, and well-being among Asian American women: An intersectional approach. *Women & Therapy*, 1-20.
- Cheng, H.-L., Tran, A. G. T. T., Miyake, E. R.,

- & Kim, H. Y. (2017). Disordered eat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women: A racially expanded model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2), 179-191.
- Danial, S. & Bridges, S. K. (2010). The drive for muscularity in men: Media influences and objectification theory. *Body Image, 7*(1), 32-38.
- Fredrickson, B. L.,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02), 273-279.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 81-89.
- Holmes, S. C. & Johnson, D. M. (2017). Applying Objectification Theor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ctimization and Disordered Eat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5*(8), 1091-1114.
- Kessler, R. C., Mickelson, K. D., & Williams, D. R.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208-230.
- Kim, S. Y., Seo, Y. S., & Baek, K. Y. (2014). Face consciousness among South Korean women: A culture-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24-36.
- Koleoso, O. N., Akanni, O. O., & James, J. O. (2018). Body Image Objectification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of South-West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Health, 5*(2), 1-5.
- Kozee, H. B., & Tylka, T. L. (2006).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with lesbia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348-357.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176-189.
- Kwan, M. Y., Gordon, K. H., & Minnich, A. M. (2018).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Eating behaviors, 28*, 25-31.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2*(1), 1-27.
- Luo, Y. J., Niu, G. F., Kong, F. C., & Chen, H. (2019). Onlin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Chinese adolescent girls' intuitive eating: The role of broad conceptualization of beauty and body appreciation. *Eating Behaviors, 33*, 55-60.
- Martens, M. P. (2005). Future direc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

- 375-382.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itchell, K. S., & Mazzeo, S. E. (2009). Evalu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objectification theory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 384-395.
- Moradi, B. (2010). Addressing gender and cultural diversity in body image: Objectification theory as a framework for integrating theories and grounding research. *Sex Roles*, 63, 138-148.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0-428.
- Moradi, B., & Rottenstein, A. (2007). Objectification theory and deaf cultural identity attitudes: Roles in deaf women's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78-188.
- Moradi, B., & Subich, L. M. (2003). A concomitant examination of the relations of perceived racist and the sexist events to psychological distress for African America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 451-469.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4, 269-279.
- Nielson, H. E., Reel, J. J., Galli, N. A., Crookston, B. T., & Miyairi, M. (2013). Body Image and Westernization Trends among Japanese Adolescents. *Health Educator*, 45(1), 4-10.
- Phan, T., & Tylka, T. L. (2006). Exploring a model and moderators of disordered eating with asi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36-47.
- Ping, R. A. (1996a). Estimating latent variable interactions and quadratics: The state of this art. *Journal of Management*, 22, 163-183.
- Ping, R. A. (1996b).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 166-175.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zymanski, D. M., Carr, E. R., & Moffitt, L. B. (2011).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Clinical implications and training

-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 107-126.
- Szymanski, D. M., Henrichs-Beck, C. (2014). Exploring sexual minority women's experiences of external and internalized heterosexism and sexism and their links to coping and distress. *Sex Roles*, 70, 28-42.
- Tolaymat, L. D., & Moradi, B. (2011). U.S. Muslim women and body image: Links among objectification theory constructs and the hijab.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 383-392.
- Velez, B. L., Campos, I. D., & Moradi, B. (2015). Relations of sexual objectification and racist discrimination with Latina women's body image and mental healt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6), 906-935.
- Williams, D. R., Yu. Y., Jackson, J., & Anderson. N.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335-351.
- Williams, D. R., Spencer, M. S., & Jackson, J. S. (1999). Race, stress, and physical health: The role of group identity, In R. J. Contrada & R. D. Asmore(Eds.), *Self, social identity, and physical health: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 (pp.71-1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seman, M., & Moradi, B. (2010).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sexual minority men: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 154-166.
- Wu, A. D., & Zumbo, B. D.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Mediators and Moder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3), 367-392.
- Zheng, Y. & Sun, Q. (2017). Testing Objectification Theory with Chinese Undergraduate Women and M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5(4), 629-640.

원 고 접 수 일 : 2020. 02.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30
계 재 결 정 일 : 2020. 06. 22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and Eating Behavior: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Keun Young Baek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Aeran Kim

Yonsei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er

The current study examined whether perceived discrimination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eating behavior through internalization,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among femal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Results from 228 femal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dicated that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indirec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egative eating behavior through mediation by internalization,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Additionally, perceived discrimin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and body surveillance. Finally, perceived discrimination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negative eating behavior through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for future research and therapy practices are discussed.

Key words : *Objectification Theory, Femal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Perceived Discrimination, Moderated Mediation*